

# 直指와 비구니 妙德에 관한 연구

이 세 열\*

- 
- |                        |                             |
|------------------------|-----------------------------|
| I. 여는 말                | 1. 정안군(定安君)의 부인 임씨(任氏)      |
| II. 묘덕스님의 생애           | 묘덕과 윤필암(潤筆菴)                |
| III. 묘덕의 신앙관과 계첩(戒牒)   | 2. 정안군(定安君) 허종(許宗)          |
| 1. 『묘덕계첩』이란            | 3. 정안군(定安君) 허종과 고려 및 원나라 왕실 |
| 2. 『묘덕계첩』의 서지적 특성      | 4. 묘덕스님은 과연 왕실출신이었을까?       |
| 3. 묘덕과 계첩과의 관계 및 의의    | V. 금속활자본 『직지』 간행과 묘덕스님      |
| IV. 묘덕과 고려 왕실 정안군과의 관계 | VI. 장흥임씨(長興任氏)와 묘덕스님        |
|                        | VII. 맺음말                    |
- 

## I. 여는 말

묘덕(妙德)스님은 백운경한(白雲景閑) 스님의 저작인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와 『백운화상어록(白雲和尚語錄)』을 간행함에 있어 그 실제적인 출판 경비를 시주(施主)하신 분이다. 그런데 고려 말기 당시 이 저작들의 출판 경비를 최씨 무인정권 시대에 간행된 『대장경』과 같이 중앙정부나 사찰 차원이 아닌 비구니(比丘尼)인 여자 승려 개인이 부담한 사실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묘덕스님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함으로서 당시 고려시대의 왕실재정 및 지방정부나 사찰의 경제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묘덕스님에 대한 연구로는 필자<sup>1)</sup>와 허홍식 교수의 저

---

\* 주성대학 학술지원팀장

1) 이세열, 1997. 10. 「직지 간행에 참여한 여승 및 시주자들에 관한 연구」 『제2회 문화예술정책 세미나 -충북의 민족문화와 직지고인쇄문화-』, 49~60.

서) 이외에 특별히 연구된 것이 없다.

묘덕스님에 대하여서는 출생이나 성장과정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만 1988년도에 발견된 『묘덕계첩(妙德戒牒)』<sup>3)</sup>을 통하여 그녀의 불교 신앙관과, 백운경한 스님의 저작 간행<sup>4)</sup>에 재정적 도움을 준 사실, 그리고 경기도 양평군에 있는 윤필암(潤筆菴)을 건립<sup>5)</sup>하거나 지공선사(指空禪師)의 부도비(浮屠碑)를 세우는데<sup>6)</sup> 시주를 한 것 이외의 자세한 기록이 없어 현재로서는 그녀에 대한 출생설은 추정만 될 뿐이다.

묘덕에 관하여 전해지고 있는 문헌에 의하면 그녀의 속성이 임씨(任氏)였다는<sup>7)</sup> 기록 밖에 없어 그녀의 본관이나 가족관계에 대하여 잘 알 수는 없다. 그러나 고려 이후에 생겨난 임씨<sup>8)</sup>중 한 성씨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녀가 언제 승려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2) 許興植, 1997.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指空禪賢-』(서울 : 일조각).

3) 『妙德戒牒』, 泰定三年(1326) \* 다음부터는 『妙德戒牒』이라 약칭한다.

泰定三年丙寅五月十五日牒 泰定四年二月 日牒

如來遺教弟子 傳授一乘戒法 西天禪師 指空

付受優婆夷 妙德

4) 묘덕스님은 1377년 7월에 충청도 청주목 흥덕사에서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을 금속 활자로 간행하는데 그 출판비용을 시주하였으며, 그 이듬해 6월에도 경기도 여주 취암사에서 흥덕사에서 찍은 『지지』와 백운경한의 또다른 저작인 『白雲和尚語錄』을 목판본으로 간행할 적에도 출판경비를 시주하였다.

5) 徐居正 等編, 『東文選』 第 74卷, '砥平縣彌智山潤筆菴記' \* 다음부터는 『동문선』이라 약칭한다.

6) 李穡, 『牧隱文集』, '指空和尚碑銘(西天提納薄庵尊者浮屠銘并序)'

…宣光八年戊午(1378) 五月 日立

西天提納薄庵尊者門生名目略錄

…檀越…妙德…

이 비는 1378년 5월에 세운 지공화상의 부도비로서 위의 비문 앞면 단월(檀越)란에 묘덕이 있는 것으로 보아 묘덕스님은 이 때에도 다른 신도들과 함께 시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

7) 『東文選』 第74卷, '砥平縣彌智山潤筆菴記'.

…與夫定安君夫人任氏 今爲比丘尼名妙德 德捨財而彌智之有是菴也 此韓山字之有是記也…戊午秋八月記.

8) 고려 이후에 생겨난 임(任)씨 중에서 현재까지 문헌이나 세계(世系)가 이어내려 오는 것으로는 장흥(長興:定安)임씨와 풍천(豊川)임씨가 있어 묘덕도 이 두성씨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허홍식 교수는 묘덕 임씨의 본관을 나주(羅州)로 보았는데 나주의 본관 중에 林氏는 있어도 任氏는 나주를 본관으로 두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허교수가 정안군부인의 봉작명을 붙일 때 보통 지명을 붙이는 관례로 보아 정안 즉, 지금의 장흥이 속해있던 나주목을 본관으로 잘못 본 듯하다. 실제로 고려 예종 때 장흥 임씨의 증흥조라 할 수 있는 임의(任懿)의 3째 아들인 원순(元順, 일명 元濬)이 정안공(定安公)에 봉하여졌다. 그러니까 원순의 본관에다 봉작을 준 것이다. 또한 임의의 묘지명에 따르면, "公諱懿 字忠恭 姓任氏 羅州定安人也"라고 되어 있어 현재로 말하면 나주목의 정안현 출신이란 뜻으로 당시 행정구역상의 정안현이 나주목에 속하

서도 불명확하나 그녀가 일찍부터 불교에 심취하여 출가하기 전에 계첩을 받음은 물론 당시 고위관료들이나 고승들과의 교류로 보아 사대부 이상 또는 왕실일 가능성이 짙다.

그리하여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던 묘덕스님에 대한 가계관계를 비롯하여 출생과 성장과정, 불교관을 비롯하여 그녀의 결혼 및 출가(出家) 시점을 밝히고 묘덕과 정안군과의 관계가 금속활자본 『직지』는 물론 그밖에 백운경한의 저작을 간행함에 있어 그녀 주변 인물들이 미친 영향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II. 묘덕스님의 생애

묘덕의 출생년도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로 1988년도에 발견된 『묘덕계첩』에 의하면<sup>9)</sup> 인도의 고승 지공이 우리 나라에 와서 세속인들에게 수계(受戒)를 한 시기인 1326년 때의 일이다. 묘덕에 관해서는 행장(行狀) 등 기록이 거의 없어 추정할 수 밖에 없지만 그녀와 함께 교류하였던 이들로부터 그나마 약간의 행적을 더듬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된다. 이 계첩에 의하면 인도의 지공스님이 전수(傳授)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때 나옹(懶翁)의 나이가 7세였으므로<sup>10)</sup> 묘덕의 나이와 비슷한 시기로 본다면 묘덕의 출생연도 또한 나옹의 출생연도인 1320년<sup>11)</sup>을 전후한 시기로 보여진다.

묘덕이란 이름은 보살명으로 그 본래의 의미를 보면 '위로는 불법의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보살도를 두루 닦아서 미묘한 공덕을 원만히 갖추라는' 뜻을 지닌<sup>12)</sup> 이름이다. 또한 『정법안장(正法眼藏)』에서는 뛰어난 덕이란 의미이고, 『교행신증(教行信證)』<sup>13)</sup>에서는 묘덕보살 즉, 문수보살(文殊菩

였던 것이다.

9) 許興植, 1997. 앞 책, 82에 의하면 1988년에 처음 알려졌으며 1995년에 대구의 여조연(呂朝淵) 씨가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10) 『懶翁行狀』: …母鄭氏 鄭夢見 金色隼飛來 啄其頭 墜卵入懷中因 而有娠 以延祐庚申正月十五日 生…

11) 바로 위의 나옹행장의 출생연월일로 볼 때 나옹의 나이는 우리 나라 나이 계산법으로 볼 때 7세가 정확하므로 일부 학자가 말하는 8세는 잘못 계산된 것이다.

12) 고성훈 지음·일지 해설, 1997. 『佛名辭典』(서울: 우리출판사), 65.

13) 교행신증(教行信證) 6권. 『교행증문류(教行證文類)』의 걸 표지제목. 이것은 진언종(眞言宗)에서 세운 사법(四法)의 이름이다. 교(敎), 행(行), 증(證). 3법 외 다시 신(信)의 일신(一信)의 일법(一法)을 더 세운 것으로 진언종의 법문(法文)에서 특별히 신심(信心)이 가장 중요함을 보인 것이다. 교(敎)는 『무량수경(無量壽經)』을 가리키며, 행(行)은 나무아미타불을 가리키고, 신(信)

薩)을 말하기도 한다. 이 보살명은 계첩에서도 묘덕이었는데 윤필암(潤筆菴)을 건립한 이 후에도 계속 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묘덕은 계첩이 작성될 무렵에 받았던 보살명을 그대로 출가 후에도 법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묘덕이 지공에게서 계첩을 받았을 때는 우바이(優婆夷) 즉, 재가신도였기 때문에 아직 출가 전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묘덕이 나옹과 같은 연령대인 1326년 7세 무렵에 수계를 받았다고 보기에는 이처럼 어린아이도 수계를 받을 수 있었는지 다소 의문이 간다. 최근 청주에서 묘덕을 인물로 한 오페라를 제작중<sup>14)</sup>인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이 묘덕 스님이 출가(出家)한 시기였다. 묘덕스님이 비구니가 된 사실이 처음 나오는 것은 1377년에 간행된 금속활자본 『직지』의 간기와 일 년 후 ‘윤필암기(潤筆菴記)’<sup>15)</sup> 등의 기록으로 본다면 묘덕은 대략 58세 이전에 출가하였으며 『직지』를 간행할 무렵에도 윤필암에 있으면서 이 사찰을 중건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묘덕이 출가하기 전 수계를 받은 시기

은 나무아미타불을 믿는 신심(信心)을, 증(證)은 극락에 왕생하여 열반의 증과(證果)를 얻는 것을 말한다.

14) 묘덕과 관련된 직지오페라는 1997년 하반기에 충북대학교 김승환 교수와 청주대학교 김태훈 교수의 발의에 의하여 처음으로 구상되었으며, 그 원작은 필자의 세미나 자료였기에 김민형 시인과 함께 필자도 오페라 대본작업에 동참하였다. 이 오페라는 금속활자를 탄생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친 비구니 묘덕에 관한 내용으로 엮어져 2000년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세종문화회관에서 첫 공연을 가진데 이어 11월 9일에서 12일까지는 청주예술의전당에서 2차 공연을 가졌다.

15) ①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卷下 興德寺本 刊記

宣光七年丁巳七月 日 淸州牧外 興德寺鑄字印施

緣化 門人 釋璨 達湛

施主 比丘尼 妙德

② 『東文選』 第 74卷. ‘砥平縣彌智山潤筆菴記’.

…與夫定安君夫人任氏 今爲比丘尼名妙德 德捨財而彌智之有是菴也 此韓山字之有是記也…戊午秋八月記.

여기서 묘덕이 출가한 시기를 대략 40대 초반에서부터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직지』를 간행한 1377년 그러니까 묘덕의 나이가 58세 무렵인 40-58세 사이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묘덕이 수계를 받았을 때는 분명히 재가신도였고, 윤필암기의 기록에 ‘저 정안군의 부인 임씨는 이제 비구니가 되어 이름을 묘덕이라 하였는데…’란 문구의 시제로 보아 묘덕이 출가를 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암시하여 주고 있어 1377년 직전에 출가를 한 것으로 보이며 법명은 수계 때에 받은 것을 비구니가 되고 나서도 그대로 사용한 듯하다. 또한 ‘윤필암기’가 이 색에 의해 1378년 8월에 쓰여진 것으로 볼 때 흥덕사본 『직지』가 간행될 무렵부터 1378년 6월과 7월에 목판본 『직지』와 『백운화상어록』이 간행될 적에 묘덕은 윤필암에서 비구니의 신분으로 이 사찰의 중건을 시작하거나 거의 마치고 있었던 때이다.

는 공민왕 6년(1357)에 사경(寫經)된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양식과 1326년의 계첩 발원문 양식이 같은 것<sup>16)</sup>으로 볼 적에 묘덕이 받은 계첩은 나옹선사가 출가를 한 이후 원나라에 가서 지공에게 가르침을 받고 수계계첩을 가지고 귀국한 공민왕 7년(1358) 이후<sup>17)</sup>로 본다면 묘덕이 계첩을 받은 해 또한 나옹과 비슷한 연령대인 대략 39세 정도 무렵이 아닌가 한다.

묘덕이 결혼을 한 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묘덕과 같은 시대에 정안군(定安君)으로 봉작을 받은 종실이며 왕(王)씨 가문의 왕시(王諶)<sup>18)</sup>와 왕중(王琮)<sup>19)</sup>, 그리고 염승익의 외손이며 양천 허씨 가문의 허중과 같은 형제인 허경(許慶) 중 비교적 기록이 자세하고 가능성 있는 허중(許棕)<sup>20)</sup>과 결혼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정안군의 부인인 수춘옹

16) 權熹耕, 1986. 『高麗寫經의 研究』(서울 : 미진사), 435~438. 공민왕 6년(1357). 折本. 白紙金尼. 서울 호림미술관 소장.

\* 이 양식은 1326년에 묘덕이 받은 계첩과 1357년에 사성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의 발원문 양식이 거의 같다.

17) 계는 지공이 내렸지만 당시에는 공명계첩 즉, 오늘날 연예인들에게 아무런 내용없이 그냥 사인을 받는 형식이었다가 후에 나옹이 지공을 찾았을 때 지공이 서명이 되어 있는 공명계첩에 무생계경의 내용을 썼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시 지공의 인기는 그가 주로 금강산과 개경의 선종사원에만 머물렀을 때 석가가 환생을 하였으며 달마가 왔다고 할 정도로 환영이 대단하였다고 한다. 그러니까 지공이 고려에 왔을 당시 이미 사찰에서는 무생계경이 들어있지 않은 계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는 무생계경의 축원 양식이 1357년도와 것과 같기 때문에 지공이 처음 고려에 왔을 당시의 무생계경의 축원 양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옹이 지공을 찾은 해는 충목왕 4년(1348) 29세 때에 법원사(法源寺)에서 처음 만났으며, 충정왕 2년(1350) 31세에 지공과 헤어졌으나 약 2년간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공민왕 7년(1358) 39세 때에 이르러 지공의 권고를 받고 나옹은 고려로 귀국을 하였다. 그러나 허홍식 교수에 의하면 나옹의 계첩과 묘덕의 계첩과는 서로 글씨가 다르기 때문에 공명계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본다고 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밝혔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재가신도들에게도 수계를 하였으므로 묘덕도 어린 나이에 계를 받은 것으로 보이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묘덕이 어릴 때는 공명계첩을 주고 후에 성장하였을 때 다시 이전에 서명을 한 계첩에 발원문을 써서 주지 않았나 한다.

18) 『高麗史』 第91卷, 列傳 第4 宗室侯篇 “王璉”  
璉封益興君 子慎封福安君 慎子諶·譜·諮 諶封定安君…

19) 『高麗史』 第35卷, 世家 第 35 忠肅王 2 忠肅王 10年 10月 甲戌條.  
帝以卽位 … 遣定安君琮 …  
同王 11年 2月 丁卯條

大護軍張公允 覺批目 還自元 琮爲大匡定安君…

20) 『高麗史』 第131卷, 列傳, 第44 反逆5 曹頌篇  
…頌嘗娶廉承益孿女 與承益外孫定安君許慶…

주(壽春翁主)가 1345년에 그리고 이어 정안군이 1346년에 사망하였으므로<sup>21)</sup> 수춘옹주가 세상을 떠난 이후 곧바로 재혼을 한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정안군이 수춘옹주를 못 잊어 그 영향으로 1년 뒤에 사망한 것으로 볼 때 묘덕은 후처가 아닌 후실일 가능성이 높으며, 묘덕이 정안군과 결혼을 하고 정안군이란 봉작(封爵)을 받은 연도로 추정하면 대략 13세 이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반드시 후실이었다고 보기에다 다소 의문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려사』의 기록대로 ‘충숙왕(忠肅王이) 원나라에 있으면서 허종을 불러들였다. 이 때 허종의 장인이 되는 충선왕이 1313년에 북쪽으로부터 연도(燕都:현재의 북경)로 돌아와서 허종을 만나자 그의 손을 잡고 울면서 말하기를 ‘나에게는 외동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자네와 함께 27년간을 결혼하여 살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것은 바로 내가 자네를 끔찍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허종에게 많은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다. 충숙왕이 귀국(북위년도 1332년)하자 허종을 정안부원군(定安府院君)으로 높여 책봉하여 주었다. 또 충혜왕(忠惠王)을 따라서 원나라에 들어가 5년간 머물러 있었다.’ 라고 한다면 정안군은 최소한 1308년 무렵 그러니까 묘덕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수춘옹주와 결혼을 하였으며 장인이 되는 충선왕이 자기 딸과 27년간이나 결혼 생활 중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이 때까지는 정안군에게 있어서 여자들간에 골치 아픈 후실은 두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리하여 필자의 생각으로 보건데 묘덕이 정안군 허종과 혼인을 하였다면, 수춘옹주가 죽은 직후 바로 정안군에게로 시집을 가서 정안군과는 대략 1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을까도 생각되나 정안군이 묘덕 임씨의 본관으로 봉작을 받았다면 실제 봉작을 받은 연도와 차이가 많이 나고, 정안군의 봉작을 받은 다른 이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묘덕의 사망연도에 대하여서도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왕 5년(1379년) 5월<sup>22)</sup> 신록사의 나옹화상 석종비 건립 때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우왕 10년(1384) 묘향산 안

21) 『高麗史』 第105卷, 列傳 第18 諸臣篇, ‘許珙·悰·猷’.

…忠肅在元 召入朝 時忠宣自北還燕都 握棕手泣曰 吾唯一女 卿同居二十七年 無間言 此寡人所以鍾情也 因厚遺之 忠肅還國 加封定安府院君 又從忠惠入元 留五年 忠穆元年 翁主卒 哀過遭疾卒.

고려시대 여성들의 결혼연령은 원나라에 공녀제도가 있기 이전에는 대략 16세 이상이었다가 원으로 공녀가 시작되면서 결혼연령이 낮아졌다. 그러나 당시 여성들의 묘지명을 통하여 보면 염경애는 25세, 강릉군대부인 24세, 최윤의 처인 광양군부인 김씨는 31세 등 비교적 나이가 많았음에도 재가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묘덕의 경우는 27세 이전이라고 추정한다면 재가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고려말에서 조선 중기에도 57세에 재혼을 한 경우도 있었다.

22) ① 朝鮮總督府 編, 1976. 『朝鮮金石總覽』, ‘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 裏面. \* 다음부터는 『朝

십사에서 지공과 나옹스님의 사리석종비를 세울 당시 나옹의 문도인 묘덕의 시주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묘덕은 만년에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머무르다가 1384년 이전에 사망하였으며 최소한 60세 이상을 생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377년 이전에 처음 승려가 되었다면 묘덕은 7세 무렵에는 지공선사에게서 공명계첩만을 받았다가 20대 후반에 남편을 잃은 후 상당한 세월이 흘러 나옹이 귀국한 39세 무렵에 정식으로 계첩을 받았으며 그간 홀로 지내다가 50대 후반에 출가를 하고 60대 초반에서 중반사이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묘덕과 교류하였던 인사로는 인도의 승려인 지공<sup>23)</sup>·나옹<sup>24)</sup>·백운<sup>25)</sup> 등 당대의 선걸(禪傑)들과, 지선·지수<sup>26)</sup> 등 사찰 건립에 협조한 승려 및, 북원군부인 원씨(北原郡夫人元氏)·구성군부인 이씨(駒城郡夫人李氏)·영평군부인 윤씨(鈴平郡夫人尹氏)<sup>27)</sup> 등 백운의 저작 간행에 출판경비를 시주한 사대부층의 부인들, 그리고 당대의 문장가이며 정치가였던 김계생(金繼生)<sup>28)</sup>, 이색(李穡)<sup>29)</sup> 등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던 것으로 볼 적에 그녀의 성

『鮮金石總覽』이라 약칭한다.

門生…比丘尼淨業院住持妙峯·妙德…

…蒼龍己未(1379) 五月 十五日.

② 『朝鮮金石總覽』, ‘寧邊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

高麗國 平壤道 延山府 妙香山 安心寺 石鐘之碑…今上 守位之十又一年 夏五月 釋覺持自香山來 披緇衣 躡屨…與義州萬戶張密直侶 及其室康氏 樹石鐘香山安心寺 厝二師舍利 略同神勒 上院之制焉….

묘덕에 관한 마지막 기록으로는 ‘나옹화상석종비문’을 세운 1379년 5월 15일이며, 그 후 지공과 나옹의 사리 석종 등을 세우는 비문에 묘덕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녀는 이미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3) 『妙德戒牒』, 앞 책. 『白雲和尚語錄』, 1378年 鷲嶺寺 木版本. \*다음부터는 『白雲和尚語錄』이라 약칭한다.

묘덕은 일찍이 7~8세 무렵인 1326년 3월에 인도의 고승 지공선사가 고려에 도착하자 겨우 2개월이 지나서 수계할 정도의 열렬한 신도였기에 지공선사가 입적한 후 지공의 부도비를 세울 때도 그 경비를 시주하였다. 지공의 비움기에는 지공의 문도, 공덕주, 단월, 건립기술 자 등이 실려있는데 묘덕은 지공의 문도 문생 시자이며 비구니 여성 출가자로 지공이 고려에 왔을 때 그로부터 수계를 받고 출가를 하였거나 도착한 다음에 이를 수호하는 회암사 부근에 머물던 여승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24) 『妙德戒牒』, 앞 책.

25)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앞 책. 『白雲和尚語錄』, 위 책.

26) 權相老 編, 1994. 『韓國寺刹事典』, ‘石顛文鈔’. \*다음부터는 『韓國寺刹事典』이라 약칭한다.

…龍門山潤筆庵重建記 牧隱李公記 有日 穡 奉教撰普濟浮屠銘 其門徒 來謝以潤筆之資 婉言辭之 請補舊寺之廢 是時 沙門志先·志守 並佗比丘尼妙德 所捐資 重新古庵 仍題筆云….

27)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앞 책, 『白雲和尚語錄』, 앞 책.

격은 개방적이며 상당히 사교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묘덕이 받은 계첩은 재가신도든 출가신도든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지공이 불교를 전파하려고 순비(順妃)의 요청으로 신분과 성별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루에 수 만 명씩 계(戒)를 주었다고 하나 그래도 불교적 신앙심이 깊거나 사회적 신분이 높은 계층의 사람들만이 지공과 같은 고승을 대면하고 계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Ⅲ. 묘덕의 신앙관과 계첩

#### 1. 『묘덕계첩』이란

계첩이란 불교의 수계식(受戒式: 불문에 들어가 계율을 받는 의식) 뒤에 계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신표(信標)로 주는 첩(牒)으로 일종의 '실천서약서'라고 할 수 있다. 승려들은 사미계(沙彌戒)·구족계(具足戒)·보살계(菩薩戒)를 받을 때마다 이 계첩을 받게 되며, 재가신도들은 『삼귀오계첩(三歸五戒牒)』 또는 『보살계첩(菩薩戒牒)』을 받게 된다. 이 계첩을 한꺼번에 많은 수계자에게 주기 위해서 고려 및 조선시대에는 목판에 새기기도 하였다.

『묘덕계첩』이란 묘덕이 1326년 5월에 지공화상으로부터 받은 『무생계첩(無生戒牒)』으로 1988년에 처음 발견되어 알려졌으며 현재는 대구의 여조연(呂朝淵)씨가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무생계첩』으로는<sup>30)</sup> 1326년 8월에 각경(覺慶)이 받은 『각경계첩』과, 1327년 2월에 나옹(懶翁)이 받는 『나옹계첩』, 그리고 연도미상인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호림본계첩』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이들 계첩들은 모두 『무생계경(無生戒經)』을 기본으로 작성된 신도의 실천서약서라고 할 수 있다.

『무생계경』의 의미를 보면 승속을 포함한 모든 신도를 대상으로 한 무생계의 무생(無生)<sup>31)</sup>으로 불생(不生)과 같은 뜻이며 불생(不生)은 다시 불생불멸(不生不滅)<sup>32)</sup>의 약어인데

28) 『白雲和尚語錄』, 위 책.

29) 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 앞책. 『白雲和尚語錄』, 위 책.

30) 1326년 8월에 각경(覺慶)이 받은 각경계첩과, 1327년 2월에 나옹(懶翁)이 받는 나옹계첩, 그리고 연도미상인 호림박물관에 소장된 호림본계첩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31) 무생(無生) : 생기는 일이 없는 것. 사물의 본질이 공(空)이므로 생멸변화하는 일이 없음을 말함.

32) 불생불멸(不生不滅) : 생도 없고 멸도 없다는 것. 상주하다는 것. 깨달음의 경지를 형용하여 말함. 해탈의 경지. 영원.

성철스님의 풀이에 의하면 이 불생불멸은 '불성이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으로 불교의 핵심을 나타내는 말이라는 것이다. 가히 불교의 알파요 오메가인 셈<sup>33)</sup>이다. 즉, 『무생계첩』의 내용을 『무생계경(문수사리최상승무생계법)』의 핵심을 뽑아서 옮긴 것이다.

『무생계경』의 권상에서는 『무생계경』의 요점과 기원을, 권중의 끝 부분과 권하에서는 『무생계경』의 효율성과 지켜 나아가야 할 태도를 수록하고 있으나 계첩의 끝부분에는 지공 자신이 수계자에게 주는 서원(誓願)과 부탁이 첨가되어 있기도 하다.

## 2. 『묘덕계첩』의 서지적 특성<sup>34)</sup>

『묘덕계첩』은 다른 계첩과의 형태적 차이도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묘덕계첩』은 『나옹계첩』의 제목을 포함하여 6행의 앞부분까지 파손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끝부분의 2행이 약간씩 다를 뿐이다. 호림박물관에 보존된 사경 가운데 『문수최상승무생계법』은 『묘덕계첩』의 셋째면부터 시작되는 본문의 제4목과 일치하므로 호림박물관의 『무생계법』이 곧 계첩의 원문이다. 『묘덕계첩』은 해인사의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 계첩과 크기와 지질뿐만 아니라 변상도(變相圖)와 표지도 거의 같은 감지금자(紺紙金字) 사경이다.

현존하는 3가지 계첩 중 『묘덕계첩』이 가장 오래된 것이며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 장정의 계첩 전체가 매우 아름답고 보존 상태가 가장 완전한 상태이다. 끝부분의 지공과 묘덕 이 4가지 글자들은 다른 글자와 다른 필치이고 매우 서투른 서체이다. 『묘덕계첩』의 수계자는 지공 다음에 쓰였고 지공이란 글자가 『나옹계첩』에서는 『묘덕계첩』보다 훨씬 세련된 필치를 보인다.

『묘덕계첩』은 『무생계첩』으로서 가장 오래된 전형일 뿐만 아니라, 사경과 선화(禪畫)의 예술성이 우수하고 이 방면의 대표적인 작품이다. 『묘덕계첩』에는 수계자의 이름도 지공을 썼으나 『나옹계첩』은 우마새(남자 재가신도)라 하지 않고 '부제자나옹혜근(付弟子懶翁慧勤)'이라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공의 필치가 아니라 계첩의 다른 부분의 글씨와 같아 나옹이 출가한 다음에 쓴 계첩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된 연유는 나옹이 태정 4년(1327)에 그의 집안에서 마련한 공명계첩(空名戒牒)이나 필사한 계첩을 가지고 출가 후

33) 장경일, 1997. 「指空스님의 文殊最上乘無生戒法の 신앙적 의의 -禪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법-」 『불교와 문화』(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256.

34) 許興植, 1997. 앞 책, 83~85.

지공을 찾아 확인을 받고 그 때 자필로 쓴 것으로 추측된다.

『묘덕계첩』의 형태 서지학적인 특성

- \* 지질 : 감지금자(紺紙金字) 사경(寫經)
- \* 형태 : 절첩본(折帖本).
- \* 크기 : 세로 85mm x 가로 810mm
- \* 면수 : 15폭
- \* 표지문양 : 첫장은 표지로서 당초문(唐草紋)을 바탕으로 삼고 중간에 제첩(책이름)이 있으며, 이 표지의 맨 아래는 연꽃으로 받쳐있고 윗부분에 꽃잎 3개가 펼쳐진 형태.
- \* 본문
  - 1면 : 길 표지로 文殊最上乘無生戒牒이란 제첩.
  - 2장 : 선화(線畫)가 구름 위에 마련된 연꽃 대좌에 문수보살이 앉아 있는 모습으

로 그려져 있음. 보살은 천의(天衣) 한 자락을 구름 위로 늘어뜨리고 약간 수평의 아래 땅 위를 바라보는 모습이며 매우 단아하고 아름답다. 작은 원(圓)의 두광(頭光)과 이보다 큰 신광(身光)이 2개의 원으로 반쯤 세워져 석장(錫杖)을 들고 약간 왼쪽으로 서있는 모습이다.

3-14장 : 무생계법(無生戒法)을 금니(金泥)로 쓴 본문.

15장 : 끝 표지로 보상화(寶相華) 2송이가 피어 있는 사이로 앞새가 장식적으로 배열된 문양.

- \* 항자수 : 5행 13자

### 3. 묘덕과 계첩과의 관계 및 의의

『묘덕계첩』은 『무생계첩』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우바이(재가 여자신도)인 묘덕에게 준 것이다. 13세기 짐승보다 더 잔인한 오랑캐 몽고족의 침입으로 전 국토가 폐허화되고 잇달아 14세기에는 원나라의 지배에 시달리는 어둡고 답답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외국인 대선사가 나타나 자유와 해탈을 구가(謳歌)하는 대승불교의 계첩을 전수하자 너도나도 이 계첩을 받으며 희망에 부풀었던 당시의 고려 사회를 생각하게<sup>35)</sup> 한다. 또한 이 계첩은 예술적 가치나 중요성뿐만 아니라 묘덕의 종교관과 행적을 일부나마 알 수 있게 하는

아주 귀중한 사료이다.

#### IV. 묘덕과 고려 왕실 정안군과의 관계

##### 1. 정안군(定安君)의 부인 임씨(任氏) 묘덕과 윤필암(潤筆菴)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고려시대 말 백운경한 선사께서 초록하신 『직지』를 간행함에 있어 그 출판 비용을 모두 부담한 것은 중앙이나 지방정부가 아닌 묘덕이라는 여승이었다. 이전까지 묘덕스님에 대한 행적은 앞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백운경한 스님의 저작 출판경비를 시주(施主)한 것 이외에 유아기 때 수계를 받은 『묘덕계첩』과 말년에 이르러 한 암자를 중건하고, 인도국 지공선사의 부도비 건립에 관여하였다는 기록이 전부였다. 그러다가 이 묘덕 스님이 정안군의 부인이며 왕실일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1997년 충북민예총에서 주최한 '제2회 문화예술정책세미나'에서 필자에 의해 처음 밝혀지면서 묘덕스님에 대하여 학계와 예술계의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직지』 간행에 재정적 뒷받침을 하였던 비구니 묘덕은 고려 우왕 4년(1378)에 나옹혜근(懶翁惠勤)의 제자인 지선(志先)·지수(志守) 등과 함께 재물을 희사하여 윤필암(潤筆菴)을 다시 지은 묘덕이라는 법명을 가진 정안군(定安君)의 부인(夫人) 임씨(任氏)<sup>36)</sup>일 가능

35) 장경일, 앞 글, 262.

36) ① 『東文選』 第74卷, '砥平縣彌智山潤筆菴記'.

…與夫定安君夫人任氏 今爲比丘尼名妙德 德捨財而彌智之有是菴也 此韓山字之有是記也…戊午秋八月記라 하여 우왕 4년(1378)에 목은 이색이 윤필암을 중창할 당시에 쓴 것이다. 여기서 지평현이란 현재의 경기도 양평군을 말한다.

② 『韓國寺刹事典』, '奉恩寺末志'.

高麗中葉比丘尼妙德 得定安郡夫人捨財 勸建 禩王四年 懶翁門徒志先志守等重勸…라고 '윤필암기'와는 다소 다른 기록이 보인다. 그 첫째로, 묘덕이 사찰을 지은 시기로 이 기록에서는 고려 중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려 전시대의 중엽인지 고려말기의 중엽인지 불분명하나 다른 문헌의 기록으로 볼 때 고려 중엽에는 묘덕이라는 비구니의 행적이 없는 실정이고 윤필암은 우왕 때에 중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둘째로, 이 '봉은사말지'의 기록은 『동문선』 기록과 전혀 다른 묘덕이 정안군의 부인이 아니라 여승 묘덕이 정안군의 부인에게서 돈을 얻은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사실 고려 중엽에 정안군의 봉작(封爵)을 받은 이들이 장흥임씨 중에 몇 분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일치성이 없다. 이 '봉은사말지'의 기록이 사실이라면 묘덕과 정안군의 부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결

성이 매우 높다. 이 사찰은 현재 경기도 양평군(楊平郡:옛날은 楊州) 용문면 연구리 용문산 죽장봉(竹杖峯)의 산세가 험준하여 길이 끊어질 정도의 깊숙한 곳에 있던 암자<sup>37)</sup>를 새로이 다시 지으면서 윤필암<sup>38)</sup>이라 하였다는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인 용문사(龍門寺)의 산내암자이다. 그리고 같은 해 이 윤필암의 사내사찰인 용문사(龍門寺)의 대장전(大藏殿)을 지을 때에 『지지』 목판본 간행에 같이 관여하였던 북원군부인 원씨(北原郡夫人 元氏)<sup>39)</sup>가 함께 시주를 하기도 한 것으로 보아 묘덕과 북원군부인 원씨가 각각 두 곳의 경비를 분담한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묘덕과 북원군부인 원씨는 우왕 5년(1379)에 세워진 경기도 여주에 있는 나옹선사의 사리(舍利)를 보존한 ‘신록사보제선사사리석종비(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의 건립에도 관여한<sup>40)</sup> 것으로 보아 나옹의 문도였음을 알 수 있다.

## 2. 정안군(定安君) 허중(許悰)

『동문선』과 『목은집(牧隱集)』 ‘윤필암기’에서는 정안군의 부인이 묘덕 임씨로 되어 있으나 묘덕이 고려 제 26대왕 충선왕(忠宣王)의 사위인 정안군(定安君)의 부인(夫人)<sup>41)</sup>이라

---

과가 되는 셈이다. 또한 윤필암은 처음 세워진 사찰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조그마한 암자를 우왕 때에 중창을 하면서 윤필암이라고 새로이 절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봉은사말지’에서는 다른 문헌들과는 창건 시기나 창건자 시주자 등이 잘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그리하여 이 ‘봉은사말지’와 다른 문헌과의 기록에 대한 신빙성에 대하여서는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긴다.

- 37) 『韓國寺刹事典』, 『東國名山記』, …妙德曰 潤筆曰竹杖峯 皆峭絶.  
\* 고려의 사찰들은 무신정권 이후 불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하자 도시중심에 있었던 사찰들도 민가와 떨어진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 38) 『韓國寺刹事典』, 『石顛文鈔』.  
龍門山潤筆庵重建記 牧隱李公記 有日 穉 奉教撰普濟浮屠銘 其門徒 來謝以潤筆之資 婉言辭之 請補舊寺之廢 是時 沙門志先·志守 並佗比丘尼妙德 所捐資 重新古庵 仍題筆云…라고 하여 윤필암이라는 절 이름을 짓게된 사연을 말해주고 있다.
- 39) 『朝鮮金石總覽』, 『驪州神勒寺大藏記』.  
大藏殿凡三間 其施財以助之者 北原郡夫人元氏也 戊午秋八月日記.
- 40) 『朝鮮金石總覽』, 『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 裏面.  
門生…比丘尼淨業院住持妙峯·妙德…  
檀越…北原郡夫人元氏妙守…  
蒼龍己未(1379) 五月十五日….
- 41) 여기서 정안군의 부인이란 사대부 계층의 북원군부인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북원군부인은 봉작명이기 때문에 군부인(郡夫人)이 되나 정안군의 경우는 군(君)의 작위를 받은 군(君)의 부인이란 뜻이다. 부인(婦人)이란 호칭은 부인(夫人)보다 격조와 품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부(夫)

는 결정적인 사료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앞으로 정안군의 봉작을 받은 이들에 관한 자료 발굴과 세밀한 연구의 검증은 물론 묘덕의 족보 또는 고려 왕실의 가계보(家系譜)를 좀 더 연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는 비교적 자료가 충분한 정안군 허종과의 관계에 가능성을 두고 추론을 하는 것이며 역사적 사실이 입증된 것이 아님을 밝혀 둔다.

고려시대의 결혼풍습으로 보았을 때 정안군 허종에게는 여러 명의 부인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묘덕 또한 그녀들 중 한 명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적 사료기록에 나와 있는 정안군은 고려 원종(元宗)·충렬왕(忠烈王) 때의 명신이었던 허공(許珙)의 둘째 아들 허평(許評)과 염승익(廉承益)<sup>42)</sup>의 딸인 염씨<sup>43)</sup>와의 사이에 낳은 허종(許棕)이다. 허종은 충렬왕이 궁중에서 길렀으며 그가 성장하자 충선왕의 외동딸인 수춘옹주(壽春翁主)에게 장가를 들어 부마(駙馬:왕의 사위)가 됨으로써 정안군의 봉작(封爵)<sup>44)</sup>을 받았다. 그

도 지아비이니 남편에게 예속된 차별화된 호칭이라고 하나 여기서는 별도의 문제이다. 그래서 군(君)의 부인(夫人)이란 뜻이 맞는 것이다. 허홍식 교수는 정안군은 봉작으로 잘못 보아 각 군 등의 명칭으로 봉작을 내리는 관례라 하여 정안군(현재의 전라남도 장흥군)의 봉작을 받은 사대부층의 부인으로 보고 그 본관을 나주로 보았으나, 나주의 본관을 가진 임(任)씨 성이 없고 임(林)씨로 착각을 한 것 같다. 그러기에 정안군은 사료에 있는 충선왕의 사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고려시대나 조선초기까지 장흥임씨 중에서 정안군이란 봉작을 받은 몇분이 있지만 『직지』가 간행될 무렵에 정안군의 봉작을 받은 이는 허종 한 분 밖에 없다. 외에 왕시·왕종·허경 등 3분이 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기록이 자세하지 않고, 허경은 염승익의 외손으로 허종과는 형제지간이어서 만약에 묘덕이 허경과 호인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연구는 후일로 미룬다.

42) 염승익(廉承益) : (?~1302) 고려문신. 처음 이름은 유직(惟直), 본관은 서원(瑞原). 시호는 충정(忠淸). 고질병을 불공을 드려 고친 후부터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하는 것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지저(李之氏)의 천거로 충렬왕의 충신이 되었다. 1278년 박항(朴恒:1227~1281, 춘천 박씨의 시조) 등과 함께 필도치(必蘭赤:정방의 문서담당자)가 되었고, 1281년에는 승지율학조교(承旨律學助教)로서 권세를 부렸다. 1287년에는 첨의평리(僉議評理)에 이어 지도첨의사사(知都僉議司事), 1293년에는 관감찰사(判監察事)로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갔으며, 1301년에는 도첨의중찬(都僉議中贊)을 지냈다. 그는 또한 큰 저택을 지어 거기에 대장사경소(大藏寫經所)를 두기도 하였다.

43) 『朝鮮金石總覽』, '許珙墓誌'.

…次子 朝顯大夫將軍監察侍□評 聚贊成事上將軍廉公承益之女…라 하여 허종의 어머니는 염승익(廉承益)의 딸인 염씨(廉氏)라고 되어 있다.

44) ① 李蘭暎 編, 1979.『韓國金石文追補』, '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 \* 다음부터는 『韓國金石文追補』라 약칭한다. “…夫人男女兄弟凡九人 胞同者五 而異者四 夫人寢居一 三男弟諱嵩 陽川君封 子諱棕尙壽春翁主 封定安君…”라고 하여 허종은 수춘옹주(壽春翁主)에게 장가를 들어 부마(駙馬)가 됨으로써 정안군의 봉작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리하여 정안군 허중은 할아버지 허수(許遂) 때부터 왕실의 외척이었던 것이<sup>45)</sup> 그가 충선왕의 외동딸인 수춘옹주와 혼인하므로써 또다시 고려 왕실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 3. 정안군(定安君) 허중과 고려 및 원나라 왕실

허중은 충선왕의 외동딸 수춘옹주와 혼인함으로써 충선왕의 사위(駙馬)가 되는데 장인인 충선왕과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게 얽혀있다. 충선왕은 등극년도인 충렬왕(충선왕의 부왕) 34년(1308) 10월에 허중이 정안군<sup>46)</sup>으로 봉해진 이후 새집을 사서 이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하여 사위 허중의 집에 들렀다가 허중의 4째 고모가 첫 남편 평양공(平陽公) 왕현(王眩:고려 제 24대 원종(元宗)의 친조카, 평양공)을 잃고 홀로 지내던 허씨를 후비로 받아들여 순비(順妃)로 삼았는데<sup>47)</sup> 이 때 순비는 38세였다. 이런 관계로 인하여 허중과 순

② 『高麗史』 第105卷, 列傳 第18 諸臣篇 ‘許珙·棕·猷’.

子程·評·冠·寵·富·程東州事 評後改嵩 官至檢校政丞陽川君 卒諡良肅 子棕 忠烈王養之宮中 及長 尚忠宣女壽春翁主 棕少長富貴 能守禮好施 忠烈朝拜守司空 未幾罷 以帝命如元留三年 忠宣時守司徒封定安君 後復如元連遭父母喪還國 自是屏日以醫劑活人爲事 忠肅在元召入朝 時忠宣自北還燕都 握棕手泣曰 吾唯一女 卿同居二十七年 無閒言 此寡人所以鍾情也因厚遺之 忠肅還國 加封定安府院君 又從忠惠入元 留五年忠穆元年 翁主卒 哀過遭疾卒.

45) 『朝鮮金石總覽』, “許珙墓誌”.

公諱珙...考遂皇銀青光祿大夫樞密院副使翰林學士丞旨致仕 顯宗大王子大師王冲第六代 外孫也...

46) 우리 나라 봉군제(封君制)를 보면 고려 초기 종실제군(宗室諸君)에게는 원군(院君)·대군(大君)의 봉작을 주었다. 고려 말기 충렬왕 24년(1298)에는 왕자와 중손(衆孫:만 손자 외의 여러 손자) 등을 통틀어 부원대군(府院大君)·대군(大君)·원군(院君)은 정1품으로 제군(諸君)은 종1품으로 되었다. 그러다가 고려 충선왕 때에 와서 제군(諸君)도 정1품으로 되었으나, 공민왕 11년(1362)에 와서 부원군(府院君)은 정1품으로 제군(諸君)은 종1품으로 고치었다. 한편 이성제군(異姓諸君)은 부마(駙馬)·외척(外戚)·공신(功臣)에게만 주어졌던 봉군제도이다. 그러나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외척(外戚)과 부마(駙馬)의 봉군제도는 폐지되고 종실과 공신에게만 봉군(封君)이 주어지게 된다.

47) ① 『高麗史節要』 第23卷, 忠烈王 5, 丙午 幸定安君許棕第 置酒 爲棕入宅也 是日納故平陽公眩之妻 許氏號曰順妃.

② 『高麗史』 第33卷, 世家 第33 忠宣王 1, 是日宿定安君許棕第.

③ 『高麗史』 第33卷, 世家 第33 忠宣王 1, 丙午 幸定安君許棕第 置酒是日納故平陽公眩之妻許氏.

④ 『東史綱目』 第13 上, 戊申三十四, 戊申三十四...冬十月 ...納故平陽宅主許氏 爲順妃 妃 珙之女 當嫁宗室平陽公眩 生三男四女而眩死 至是 王幸其第許棕之第 置酒留宿 遂納之.

비가 고모와 조카 사이에서 충선왕은 장인이자 고모부가 되었던 것이다.

순비는 원종 12년(1271)에 태어났으며 첫 남편을 잃고 난 후 충선왕 원년(1308)인 38세 때 조카 허종의 집들이를 왔던 충선왕의 눈에 들어 비(妃)로 책봉되었다. 충숙왕 복위 5년(1336)에 세워진 왕순비허씨묘지(王順妃墓誌)<sup>48)</sup>에 의하면 순비는 전 남편인 왕현과의 사이에 3남 4녀를 두었으며 충선왕에게서는 자식이 없었으나 전 남편의 자식들로 모두 왕실의 군(君)과 옹주(翁主)의 칭호를 받았다<sup>49)</sup>고 한다. 특히 순비의 전 남편인 왕현에게서 낳은 3째 딸이 원나라의 황태자비가 되자 순비가 궁중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였다고<sup>50)</sup> 한다. 이것은 순비가 충숙왕 복위 4년(1335년)에 65세로 사망하자<sup>51)</sup> 충숙왕 복위 5년(1336) 2월에 덕수현(德水縣: 현재의 開豐郡) 증산 언덕에 장사지냈으며<sup>52)</sup> 이 때 원나라에서 조문사절을 보낸 것<sup>53)</sup>으로도 알 수 있다.

48) ① 『高麗史』 第89卷, 列傳 第2 后妃 2. 忠宣王 順妃許氏.

順妃許氏孔巖縣人 中贊珙之女 嘗嫁平陽公眩 生三男四女眩死 忠烈王三十四年 忠宣納之 及卽位冊爲順妃 後淑妃得幸 順妃之女入侍皇太子…忠肅後四年(1335)卒 元遣完者來會葬.

② 李齊賢, 『益齋亂藁』 第7卷, 碑銘 ‘王順妃許氏墓誌銘’.

次則伯顏忽篤皇后也 導大眞以霓裳 琴瑟之和已洽 貯阿嬌於金屋 習褕之寵俄嵩 妃由是芝綸得賜於華冠 簞葦親朝於藁闕 累內帑之珍錫 奉璽命以榮歸 開紺宇之壇筵 寫琅函之具典 祝釐報上 可謂至矣.

49) 李齊賢, 『益齋亂藁』 第7卷, 碑銘 ‘王順妃許氏墓誌銘’.

…有男三人女四人 長男曰順正君璫…次曰雙峯長老慈覺 脫身紈綺 抗志烟霞 被法匠之推尊 號禪師而加大 次曰懷仁君楨…女長曰永福翁主 適襄陽君金臺彥 次曰延禧翁主…次則伯顏忽篤皇后也…次曰慶寧翁主….

50) 『高麗史』 第89卷, 列傳 第2 后妃 2. 忠宣王 順妃許氏.

…後淑妃得幸 順妃之女 入侍皇太子 謾辱淑妃 白太子 令淑妃赴都…妃與淑妃不平 至是 王命淑妃往賀 終宴之間 二妃五出更衣 以復飾相高….

숙비는 본래 충선왕이 세자로 있을 때 부왕인 충렬왕의 후비였다. 그러나 충렬왕이 죽은 후 충선왕이 숙비 김씨의 언니인 김문연(金文衍)의 집에 행차하였을 때 그녀를 보자마자 마음이 통하여 10여일 후에 간통을 하고 얼마 후에 숙비로 봉하였다고 한다. 이렇듯 고려시대 왕실의 혼인은 부왕의 후비까지도 자기의 부인으로 맞는 등 문란하였다. 이러한 관계로 맺은 숙비였기에 비록 순비 자신도 재혼녀지만 숙비를 업신여겨 두 왕비들이 서로 경계를 하였다고 하며, 특히 순비는 이러한 여자들 간의 알력 싸움에까지 원나라 황태자비가 된 자신의 딸을 이용하려 하였다.

51) 『益齋亂藁』 第7卷, 碑銘 ‘王順妃許氏墓誌銘’. \*다음부터는 『益齋亂藁』라 약칭한다.

維皇元後至元元年歲在乙亥月日 高麗國順妃薨 春秋六十五.

52) 『益齋亂藁』 第7卷, 碑銘 ‘王順妃許氏墓誌銘’.

以明年丙午二月壬寅 窆于德水縣甌山之原 禮也.

53) 『高麗史』 第89卷, 列傳 第2 后妃 2. 忠宣王 順妃許氏.

순비는 또한 1326년 3월 개경에 도착하였다가 20일 후 금강산 유점사(楡岾寺)로 갔던 인도의 고승 지공선사를 4월 말경 다시 개경으로 돌아오도록 요청하여 개경(開京:현재의 개성) 근처의 숭수사(崇壽寺)에 머물게 하면서 종실과 인척·공경대부(公卿大夫)·사서인(士庶人) 등을 포함하여 신분과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하루에 수 만 명씩 수계를 하도록 주선하는 등<sup>54)</sup> 순비는 지공선사에게 세속의 충실한 단월(檀越:시주자)로서 지원하며 특별히 뒷바라지를 해주었다.

위의 기록으로 볼 때 순비는 사찰을 짓고 불경을 사경하는 일을 물론 인도의 고승 지공과도 각별한 사이기도 하며 정안군과는 조카 사이로 묘덕이 정안군의 부인이었다면 이러한 순비의 종교적 영향을 받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한 『묘덕계첩』에 있는바와 같이 묘덕이 처음 계를 받은 것은 정안군의 부인이 되지 않았을 유아가 때이며 순비가 지공에게 계를 부탁한 바로 그 시기였다. 그러나 만일에 묘덕이 어릴 때 받았던 계첩이 공명계첩이라서 그 후 나옹이 원나라에서 귀국한 1358년에 정식으로 계첩을 다시 받았다면 이때 묘덕은 대략 30대 후반으로 이미 정안군이 세상을 떠난 뒤 12년이 지난 후이다.

정안군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충선왕의 외동딸인 수춘옹주와 혼인함으로써 사위와 장인관계인데 충선왕이 허종의 고모를 비로 삼아 순비가 되었으므로 장인이자 고모부와 조카사이이기도 하다. 그리고 충숙왕은 충선왕의 둘째 아들이므로 허종과는 처남매부지간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안군 허종은 고종사촌간인 순비의 3째 딸이 원나라의 황태자비가 되었으므로 원의 황태자와도 고종처남매부지간이 된다. 충숙왕 또한 원나라 황태자비의 친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순비의 두 번째 남편이므로 원나라 황태자의 장인이 되는 반면 충숙왕은 원나라 영왕의 딸을 아내로 맞는 등 정안군과 고려 왕실 그리고 원나라 왕실간은 인척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그리하여 충숙왕은 자주 공주(公主)<sup>55)</sup>와 함께 정안군 왕시의 집을 방문하였으며<sup>56)</sup> 허종을 원나라 진종(晉宗)의 등극을 축하하기

…忠肅後四年(1335)卒 元遣完者來會葬.

54) 『指空和尚禪要錄』.

越泰定三年三月日 到于我王京…幾於二旬 及師移錫 到處皆然 至往金剛山 然後乃已 師以是年四月下旬 還自彼山 因受檀越順妃之請 住錫于城東崇壽寺 與其門弟及諸山精衲之願 赴者約爲一夏 安禪於寺之西南 高夾處 別作戒場 依最上無生戒法 大開甘露之門 於是 自王親戚里 公卿大夫士庶人 乃至愚夫愚婦 爭先雲集於戒場者 日以千萬戒.

55) 여기서 말하는 공주는 1316년 7월에 충숙왕이 원나라 영왕(營王)의 딸 역련진팔자공주(亦憐眞人八剌公主)에게 장가들어 이 해 10월에 귀국을 하였으므로 공주는 바로 이 공주이다.

56) ① 『高麗史節要』 第24卷, 忠肅王.

閏月 王及公主 移御定安公第…

② 『高麗史』 第34卷, 世家 第34 忠肅王 1 忠肅王 4年 潤 正月.

위한 외교사절로 파견<sup>57)</sup>하기도 하였다.

#### 4. 묘덕스님은 과연 왕실출신이었을까?

위의 사실로 보아서도 묘덕이 고려 왕실이었다는 확실한 정황은 없다. 『동문선(東文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녀가 같은시대 정안군의 봉작을 받은 이들 중 한분의 부인이라면 확실히 왕실 또는 종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입증자료가 많아 가장 유력한 정안군 허종의 부인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되지 않는 것은 각종 사료에서는 정안군의 부인은 충선왕의 딸인 수춘옹주로만 되어 있고 정안군 허종에게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봉은사말지’에서 처럼 묘덕이 정안군의 부인에게서 돈을 얻었다는 등 모호한 사료도 있다. 그것은 당시의 혼인제도가 임금을 비롯하여<sup>58)</sup> 상

閏月庚午 王及公主 移御定安君第.

③ 『高麗史』 第34卷, 世家 第34 忠肅王 1 忠肅王 5年 正月 戊寅.

戊寅 王與公主 移御定安君第.

④ 『高麗史』 第34卷, 世家 第34 忠肅王 1 忠肅王 5年 2月 戊申.

戊申 移御定安君第.

⑤ 『高麗史』 第89卷, 列傳 第2 后妃 2, 忠肅王 明德太后洪氏.

…後忠肅尙元濮國長公主 以公主妬忌 后出居定安公第 王數夜幸之 尹碩·孫奇等 密白王移御定安公第 遷后於隣家 以便往來….

여기서 보면 충숙왕과 허종 정안군과는 처남매부지간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안군은 허종이 아니라 왕시인 듯하다. 충숙왕이 자주 정안군 집에 들른 것은 원의 복국장공주가 홍씨에게 투기를 부리자 홍씨가 정안군 집으로 피한 것이다. 충숙왕이 이를 알고 홍씨를 만나기 위해 정안공의 집으로 가고 홍씨는 이웃집으로 옮기어 원나라 공주의 눈을 피해가면서 사랑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눈치챈 원의 공주가 자꾸 보채어 함께 정안군의 집을 다닌 듯하다.

57) 『高麗史節要』 第24卷, 忠肅王條.

元遣直省舍人阿魯灰 來頒卽位詔 遣定安君棕 賀登極.

58) 고려 말기 충렬왕에서 공민왕대까지 왕들의 결혼과 성풍속은 뒤죽박죽이었다. 원의 압력하에 강제로 원나라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이는가 하면, 다음대 왕이 선왕의 후비를 간통함은 물론 사별한 민간의 미망인들을 왕비로 삼는 경우와, 심지어 이미 결혼한 부부를 강제로 이혼을 시켜 자신의 비로 삼기도 하였다. 충숙왕의 후비 권씨는 처음 전신(全信)의 아들에게 시집을 간 것을 충숙왕이 이들을 강제로 이혼시켜 권씨를 자신의 비로 삼았는데 충숙왕이 죽자 아들인 충혜왕이 간통을 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 말기의 왕들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혼 후 재혼을 하기도 하고 선왕의 후비가 너무 젊었을 경우에는 현직 왕들이 강간을 하는 등 성풍속도가 지극히 문란하였다.

류층들의 결혼관계는 근친혼 등 무질서하기까지 하였다. 특히 정안군 허종의 아버지 허공(許珙)도 첫 부인인 윤씨가 죽자 자기 집에서 키워온 처제의 딸이자 정안군 허종의 이종사촌을 후처로 삼기도<sup>59)</sup> 하였으나 왕들에 대하여서는 후처나 첩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그 이하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정안군 허종은 수춘옹주가 죽자 그 또한 이듬해인 1346년에 죽게 된다. 그렇다면 『직지』가 간행된 해가 우왕 3년(1377)이고 이 때 묘덕은 이미 비구니가 되었으므로 무려 31년이란 시대 차가 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건데 묘덕이 정안군 허종의 후처나 후실이 확실하다면 그녀는 정안군이 죽고 나서 10여 년 뒤에 수계를 정식으로 받고서도 혼자 생활하다가 50대 후반에 이르러 불문에 귀의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서 묘덕이 정안군 허종의 부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 더욱 사료를 발굴하여 그 실체를 정확하게 규명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 V. 금속활자본 『직지』 간행과 묘덕스님

묘덕이 『직지』나 『백운화상어록』 등 책자의 간행물은 물론 나옹화상의 사리비를 세울 때 시주 등을 한 것과 그 경비가 막대함으로 볼 때 왕실의 재정이 아니고서는 일반 서민이나 비구니로써는 감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진다. 더구나 ‘운필암기’를 쓴 당대의 학자인 이색이 알 정도였다면 그녀는 정안군의 후실이며 왕실이었을 가능성이 더욱 짙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직지』의 출간은 백운경한의 뜻이며 그 스승의 정신을 제자인 석찬(釋璨)·달담(達湛)·법린(法鄰) 등이 이어받고 묘덕스님을 비롯한 여러 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직지』가 금속활자가 아닌 목판본이라면 숙련된 인쇄기술과 적은 경비로도 출판이 가능하였으리라고 본다. 그리하여 묘덕은 금속활자본 『직지』의 간행 외에도 『직지』와 『백운화상어록』 목판본을 간행 할 때에도 그 경비를 시주하였다. 그런데 의문점으로 남는 것은 목판본 간행 때에는 북원군부인 원씨 등 사대부 부인들이 도움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금속활자본 간행 때에는 묘덕 혼자서 그 많은 경비를 부담하였는지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금속활자 인쇄는 철의 생산과 유통을 허가하고 통제하는 기관과 막대한 경제능력이 없

59) 『高麗史』 第105卷, 列傳 第18 諸臣篇 ‘許珙·棕·猷’.

…忠烈元年…珙嘗娶政堂文學尹克敏女 死更娶妻弟之女 養於家者 憲司劾之….

으면 불가능하다. 금속을 주조하고 활판을 만들어 책을 편찬하는 일의 중대성과 전문성을 가능하게 하려면 명문족벌이나 정부기관 또는 왕가의 후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직지』 오페라를 기획한 김승환 교수<sup>60)</sup>도 묘덕이 『직지』의 직접 편찬자인 석찬이나 달담보다 더 중요하게 대두된 이유로 첫째, 고귀한 신분의 비구니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둘째, 한 사찰에 머무는 스님이 아니었음을 말하여 주고 백운화상을 흠모하였으며 상당히 가까웠고 또 고귀한 신분이라면 왕족이나 명문거족(名門巨族)일 것이다. 그래서 막대한 대역사의 경제적 자금과 한 지역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면 특별한 신분이라야 한다고 보았다.

중부매일신문 임병무 논설실장<sup>61)</sup>도 묘덕이 왕실이었기에 막대한 출판 비용을 낼 수 있었던 것이다. 고려시대 국교는 불교였으므로 왕가에서 『직지』 간행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고 몽고전란 이후였기 때문에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이처럼 큰 불사(佛事)와 출판작업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리하여 묘덕을 남자 위주의 중세사회에서 여인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지』를 금속활자로 탄생시키는 산파(産婆)역을 한 분으로 청사(靑史)에 빛날 여걸이라고 극찬을 하기도 하였다.

필자 또한 당시의 국교가 불교라서 모두 관심이 높은 편이었다고는 하더라도 묘덕의 경우 그녀가 어느 정안군의 부인이 되었던 간에 왕실의 지원을 받았을 것은 거의 확실하다. 또한 묘덕이 정안군 허종이나 같은 형제인 허경과 관련이 있다면 이들의 4째 고모인 순비와 남편 김변(金賔)을 잃은 후 승려가 된 큰 고모인 양천군 부인<sup>62)</sup> 그리고 순비의 차남과 둘째 고모의 3남, 양천군부인의 3남·4남 등 고종사촌들의 출가에 상당한 영향을 상당히 받았을 것이고<sup>63)</sup> 또한 정안군의 외조부인 염승익도 집안에 대장경을 사경할 수

60) 김승환, 1999. 3. 「직지오페라 대본에 관한 세미나」, 4~5.

61) 임병무, 1997. 10. 「비구니 妙德」, 『역사산책 38』(중부매일신문), 11.

62) 『韓國金石文追補』, 「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

…乙卯 薙髮爲尼 法名性曉 戒壇主白修 其師也….

63) ① 『益齋亂藁』 第7卷, 碑銘 「王順妃許氏墓誌銘」.

…有男三人女四人…次曰雙峯長老慈覺 脫身紈綺 抗志烟霞 被法匠之推尊 號禪師而加大….

② 『益齋亂藁』 第7卷, 碑銘 「金文英公夫人許氏墓誌銘」.

…凡生子男四女三…次出家名思順慈恩宗大德….

③ 『韓國金石文追補』, 「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

…夫生丈夫子四人 女子三人…次子童出家曰玄卞 爲清悟大師 今住感恩寺 次亦童出家曰如璨 投迦智山門 以四選首座 捷上上科 振衣南巡 至天目山洒還 有禪師批掉臂….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순비는 1326년 56세 때 지공이 오자 많은 사람들이 계를 받을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집안 배경으로 보아 묘덕은 이처럼 주위의 환경이 그녀의 불심을 더욱 돈독하게 하여 인류문화 역사에 남는 금속활자본을 탄생시키게 되었다고 본다. 또한 그녀가 장흥임씨일 경우 고려 중기 때부터 왕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집안이므로 정안군 허종의 부인이 아니더라도 그녀는 고려 왕실임에는 틀림없을 것으로 보인다.

## VI. 장흥임씨(長興任氏)와 묘덕스님

우리 나라에서의 족보는 1476년에 편찬된 안동권씨(安東權氏)의 족보가 시초여서 그 이전 족보는 거의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묘덕의 가계가 밝혀진 족보나 묘지명 등도 발견되지 못하여 『묘덕계첩』과 같은 새로운 사료의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고려 시대 당시 여성들에게는 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없고 봉작이나 남편의 처 또는 성씨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고려 중기 때 염경애(廉瓊愛)의 경우는 친정 어머니 심씨(沈氏)를 비롯하여 여동생들과 염경애의 딸아이까지도 이름을 지어주었는<sup>64)</sup> 바, 이렇게 특별한 예는 염경애의 친정인 심씨 집안에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관례가 염경애가 시집을 온 남편의 최씨 집안에까지 전하여진 것 같다. 그러니까 염경애의 본관인 파주(坡州) 염씨 집안에서는 남자계열과 여자계열을 동등하게 권리를 주었으나 이러한 경우도 조선 전기에 성리학이 도입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염경애의 경우를 예로 든 것은 혹시나 묘덕스님에 관한 자료가 발견된다면 묘덕의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최씨의 집안에서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 준 것과 같이 허씨 집안에서도 혹시 이러한 풍습이 있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정안군의 어머니가 바로 염경애와 같은 집안이며 외조부가 염승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

수 있도록 주선을 해주었고 그녀의 첫 남편인 왕현은 고려 제24대 원종의 친조카였고, 두 번째 남편은 제26대 충선왕이었으니 그녀의 세력은 실로 막강하였다 하겠다. 또한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난 차남이 쌍봉사의 주지가 되는 등 고려 왕실과 조계종계에서의 그녀의 역할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다. 고려시대에는 이처럼 귀족들이 출세를 위한 방편으로 출가를 많이 하였는데 당시의 불교가 국교이어서 승려들에게도 지위와 명예가 뒤따랐으므로 아무런 제약없이 출가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출가하여 출세를 하면 환속하여 정치에 입문하기도 하였다.

64) ① 『朝鮮金石總覽』, ‘宜寧郡大夫人沈氏墓誌’.

夫人姓沈氏 少名志義…一女瓊愛…二女貞愛….

② 『朝鮮金石總覽』, ‘廉瓊愛墓誌’.

…一女曰貴姜 適興威衛錄事崔國輔 崔氏亡還在室 二曰順姜幼….

허씨 집안에서는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 준 것 같지는 않다. 정안군의 큰 고모인 양천군부인의 묘지에 의하면 분명히 “국가의 풍속에 따라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다”라고<sup>65)</sup> 하여 당시 사회에서는 여성의 이름을 집안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불렀으나 공적인 기록에는 본관만 밝혔던 것으로 보인다.

묘덕의 본관은 고려시대 때부터 임씨의 시조가 된 곡성(谷城)·과천(果川)·아선(牙善)·풍천(豊川)·장흥(長興) 중 장흥임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이유는 『동문선』 등의 문헌에 있듯이 묘덕이 정안군의 부인이라는 사실이다. 고려시대 때 봉작을 줄 때에는 주로 남자들의 본관을 따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거주하는 지역명이나 부인의 본관에 주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적에 정안군은 부인의 본관에 봉작을 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은 정안군인 허종이 자기의 본관인 양천으로 봉작을 받지 못하고 묘덕의 본관인 장흥의 옛 지명인 정안으로 봉작을 받았다면 이는 관례나 예의상 허종의 부친인 허평이 이미 양천군의 봉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흥임씨의 시조 임호(任灝)는 본래 중국 소흥부(紹興府) 출신으로 당시 중국인들의 우리 나라 진출이 빈번함에 따라 귀화하여 전라남도 정안현(定安縣)<sup>66)</sup> 천관산(天冠山) 아래 임자도(任子島)에 정착한 뒤 터를 잡음으로써 시조가 된다. 그래서 임익(任懿)을 1세조로 정안임씨라 부르다가 그 뒤 정안현이 장흥 도호부(長興都護府)로 승격됨에 따라 장흥임씨로 되었다. 이러한 정안을 본관으로 봉작을 받은 이로는 임호의 아들 임의가 1세가 되고, 임의의 첫 아들 원후(元厚)가 인종(仁宗)의 국부(國舅:임금의 장인)로 정안부원군(定安府院君)에 봉하여진바 있으며, 셋째 아들 원순(元順, 일명 元濬)도 정안공(定安公)에 봉해졌다. 이렇듯 장흥임씨 선조에서 정안을 본관으로 봉작을 받은 이들이 있었으나 정안군이라는 군(君)의 봉작을 받은 이는 없어 허종이 부인의 본관으로 봉작을 받지 않았나 한다.

묘덕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장흥임씨 중에서는 임익(任翊)이라는 분이다. 이 분은 충렬왕 27년(1301)까지 생존하셨던 분으로 묘덕과의 연령대에도 가장 근접한 인물이며, 특히 정안군 허종의 큰 고모인 양천군부인의 남편인 김변(金賸)과 함께 원나라

65) 『韓國金石文追補』, ‘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

…大夫人姓許氏 以國俗不名 安南陽川人….

66) 정안현은 백제의 오차현(烏次縣)으로 신라 때 오아(烏兒)로 고쳤으며, 고려 초기에는 정안현으로 고쳐져 보성군(寶城郡) 영암(靈岩)에 소속되었다가 인종 때에 와서 정안현이 공예태후(恭睿太后) 임씨의 고향이라 하여 장흥부로 승격되었다.

세조의 사적(事蹟)을 저술하기도 하여 혹시 묘덕이 임익의 손녀 내지 증손녀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만일 묘덕이 장흥임씨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금속활자를 찍게된 배경이 좀더 세밀하게 접근될 것으로 본다.

## VII. 맺음 말

고려 말기 백운경한의 저작인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1377년 청주목 흥덕사에서, 그리고 일 년 후에 경기도 여주 취암사에서 『직지』와 『백운화상어록』 목판본을 간행하는데 그 출판비용을 회사한 묘덕스님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묘덕이 출생한 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묘덕계첩』을 통하여 당대의 고승이었던 나옹혜근 스님과 같은 시기에 계첩을 받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1320년을 전후하여 출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각종 문헌에 묘덕의 본관은 나와 있지 않고 임씨(任氏)라는 성씨만 나와 있으나 고려 말기 당시의 세도가들과 정안군의 부인이었을 경우 허종의 가계도로 미루어 볼 때 장흥임씨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묘덕은 대략 7세를 전후하여 당시 인도의 고승 지공선사가 우리 나라에 와서 수계를 할 적에 공명계첩을 받았다가 나옹이 귀국한 1358년 이후 39세 무렵에 정식으로 수계계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묘덕은 사찰을 건립하기까지 사이에는 기록이 거의 없어 잘 알 수는 없지만 정안군 허종과 결혼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해 보면 정안군 허종의 사망년도와 허종이 정안군이던 봉작을 받은 연도로 미루어 보건대 대략 27세 이전인 13세 무렵에 결혼을 하였으며, 금속활자본 『직지』가 간행된 1377년에는 이미 비구니가 되었으므로 대략 50대 후반에 불교에 귀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묘덕의 사망연도는 나옹화상의 사리석종비를 세운 1379년 5월을 시점으로 그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볼 때 1379년 이후인 60대 초반에서 중반사이로 추정된다.

묘덕의 기록이 실려있는 『동문선』 등에서 그녀가 정안군 허종의 부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사인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에는 같은 시대에 정안군의 봉작을 받은 이들이 허종외에 왕시·왕종·허경 등 3분이나 되어 묘덕이 어느 정안군과 혼인하였는지는 불분명하나 자료가 비교적 충실한 허종으로 본다 하더라도 사료에는 정안군의 부인이 충선왕의 외동딸인 수춘옹주로만 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는 묘덕이 정안군 허종의 후처나 후실이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바 이에 대하여 앞으로 더 연구하여야 할 과제인 것 같다. 묘덕은 만년에 이르러 경기도 양평에 윤필암을 다시 짓는 한편 『직지』와 『백운화

상어록』의 출판과 나옹화상과 같은 고승들의 비문 건립에도 참여하는 등 불사에 전념하였다. 그리하여 묘덕은 백운경한의 문도이자 나옹혜근의 문도이기도 한데, 이는 백운경한의 저작이나 나옹의 석종비 건립 때 도움을 준 사실로도 잘 알 수 있다.

묘덕이 『직지』의 간행에 미친 영향은 그녀가 고려 왕실과 종실의 외척이었던 정안군 봉작을 받은 이틀 집안과 결혼을 하였을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나마 왕실의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존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는 고려 말기 선승이었던 백운경한이 저술한 책을 소재로 그 제자들과 문인, 그리고 백운을 따랐던 당대의 학자 이색과 서예가 김계생, 박충 등 일부 관료들의 도움과 여승 묘덕의 확고한 재정적 뒷받침으로 지식정보 전달의 획기적인 매체로서 인쇄문화사 및 인류문화 역사의 한 장막을 이루었다.

【參考文獻】

- 權近 著, 『陽村集』.(影印本, 1973. 서울 : 亞細亞文化社), 卷38, 碑銘類 “追贈正智國師碑銘并序”
- 權相老 編, 1994. 『韓國寺刹事典』(서울 : 梨花文化出版社), “奉恩寺末志” · “龍門寺” · “神勒寺” · “潤筆菴”
- 고성훈 지음 · 일지 해설, 1997. 『불명사전』(서울 : 우리출판사).
- 權熹耕 著, 1986. 『高麗寫經의 研究』(서울 : 미진사).
- 김승환, 1999. 「직지오페라 대본에 관한 세미나」(3월 26일 오후 3시.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5~7.
- 김승환, 김민형, 2000. 「직지 -묘덕(妙德)-」(9월 22일 오페라대본 완성본).
- 김승환, 1999. 「직지오페라 기획의도」(2월 18일. 언론보도자료).
- 김승환, 김민형, 1999. 「오페라 직지」 『청주문학』 여름 제8호(수정본), 308~346.
- 金宗瑞 等編, 『高麗史節要』. (影印本, 1960. 서울 : 東國文化社).
- 懶翁 著, 佛敎學研究會 編, 『懶翁錄』. (影印本, 『韓國高僧集』 V.3, 1974. 서울 : 景仁文化社).
- 白雲和尚 景閑 編著, 李世烈 譯, 1997. 『直指(下卷)』(서울 : 保景文化社).
- 白雲和尚 景閑 編著, 『佛祖直指心體要節』. (影印本, 1996. 淸州 : 淸州古印刷博物館).
- 白雲和尚 景閑 編著, 無比 譯註, 1996. 『白雲和尚語錄』(서울 : 民族社).
- 佛敎學研究會 編, 1974. 『韓國高僧傳』 高麗時代 3(서울 : 景仁文化社).
- 徐居正 等編, 『東文選』. (影印本, 1916. 京城 : 朝鮮古書刊行會), 卷74 “砥平縣彌智山潤筆菴記” · “砥平縣彌智山龍門寺大藏殿記”
- 成海應 著, 『東國名山記』(1909. 京城 : 京城外國語學校交友會).
- 安鼎福 著, 『東史綱目』(1915. 京城 : 朝鮮古書刊行會).
- 李蘭暎 編, 1979. 『韓國金石文追補』(서울 : 亞細亞文化社, 1979) “高麗陽川郡夫人許氏墓誌銘” · “任懿墓誌
- 李能和, 1918. 『朝鮮佛敎通史』. 新文館
- 李世烈, 1999. 「직지와 문화예술」 『직지찾기운동의 성과와 과제』(3월 9일 오후 2시. 청주시의회 특별위원회실), 12~18
- 李世烈 譯註, 1997. 『直指』(서울 : 保景文化社)
- 이세열, 1999. 「직지오페라 주인공은 묘덕스님」 『동양일보』(3월 30일 19)

- 이세열, 1997. 「직지 간행의 후원자 비구니 묘덕」 『제2회 문화예술정책세미나 -충북의 민족문화와 직지 고인쇄문화-』 (10월 6일 3시, 청주예술의전당 대회의실) 49~55.
- 李穡 著, 이병혁 역주, 『牧隱集』(1995. 서울 :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卷75 “砥平縣彌智山潤筆菴記” · “砥平縣彌智山龍門寺大藏殿記”)
- 李政 編, 1993. 『韓國佛教人名辭典』(서울 : 불교시대사)
- 李政 編著, 1996. 『韓國佛教寺刹事典』(서울 : 불교시대사)
- 李齊賢, 『益齋亂藁』. (影印本, 1973. 서울 : 亞細亞文化社)
- 이철교, 1997. 「지공화상 무생계첩의 번역을 읽고」 『불교와 문화』 가을호(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310~314
- 李弘植 編著, 1997. 『國史大事典』(서울 : 학원출판공사).
- 임병무, 1997. 「비구니 妙德」 『역사산책 38』, 중부매일신문. 10월 15일 11.
- 장경일, 1997. 「指空스님의 文殊最上乘無生戒法の 신앙적 의의 -禪의 도리를 일깨워 주는 부처님의 법-」 『불교와 문화』 여름호(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256
- 鄭麟趾 等編, 『高麗史』(影印本, 1972. 서울 : 亞細亞文化社)
- 鼎鎬 著, 1962. 『石頭文鈔』. ?
- 朝鮮總督府 編, 『朝鮮金石總覽』(影印本, 1976. 서울 : 亞細亞文化社), “砥平龍門寺正智國師碑” · “神勒寺普濟禪師舍利石鐘碑” · “驪州神勒寺大藏記” · “寧邊安心寺指空懶翁舍利石鐘碑” · “許珙墓誌” · “許珙墓誌”
- 太古普愚 著, 佛教學研究會 編, 『太古錄』. (影印本, 1974. 『韓國高僧集』 V. 3. 서울 : 景仁文化社)
- 『韓國姓氏大百科 姓氏의 고향』(1990. 서울 : 中央日報社)
- 韓國情神文化研究院 編, 1993.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 V.13, V.16, V.24(城南 : 韓國情神文化研究院)
- 韓民族大姓譜編纂委員會 編, 1994. 『성씨자료집』 下(서울 : 和山堂)
- 許興植, 1997. 『高麗로 옮긴 印度의 등불 -指空禪賢-』(서울 : 일조각)
- 許興植, 1991. 「지공의 무생계경과 무생계첩」 『서지학보』 V.4(서지학회)
- 許興植 編著, 1984. 『韓國金石全文』(서울 : 亞細亞文化社)
- 『해인사 금동비로자나불 복장유물의 연구』(1997. 정보문화재단연구원)
- 其他, 『金石文』 : “廉瓊愛墓誌” · “宜寧郡大夫人沈氏墓誌 ”
- 비디오 자료 : KBS 역사스페셜 “고려부인 염경애” 1999년 6월 19일

【附錄】

『묘덕계첩』 번역문<sup>67)</sup>

제목

문수최상승무생계첩(文殊最上乘無生戒牒)

문수최상승무생계법(文殊最上乘無生戒法)

계법의 중요성

무릇 무생계는 모든 성인(聖人)이 태어나는 땅(地)이요. 온갖 선(善)이 생겨나게 하는 터(基)이다. 터전(基地)을 닦지 않으면 성과 선이 어떻게 설 수 있으랴! 이것은 마치 모래를 삶아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으니 어찌 이루어질 날이 있으랴! 또한 마치 뚝 덩어리를 깎아 향을 만들려는 것과 같으니 끝내 이루어질 수 없다.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려면 반드시 자비의 배를 빌려야 하고, 어두운 거리를 밝히려면 반드시 지혜의 횃불을 붙여야 한다. 그러므로 일체 중생들도 이 계법(戒法:계율의 규범)을 받지 않고서 불도(깨달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계법은 온갖 형상이 있는 존재이거나 형상이 없는 존재이거나를 막론하고 모두 받아서 지녀야 한다.

계법의 기원

이러한 까닭으로 이 계법을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께서 몸소 연설을 하고 문수보살(文殊菩薩)이 이를 전해 준 것이다. 모든 부처는 이를 계기로 인행(因行)<sup>68)</sup>을 완성하여, 청량(淸涼)으로써 번뇌(煩惱)를 없애고 영락(瓔珞)<sup>69)</sup>으로써 법신(法身)을 장엄(莊嚴:裝飾)하였

67) 이철교, 1997. 「지공화상 무생계첩의 번역을 읽고」 『불교와 문화』(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310~314 참조.

68) 인행(因行) : 수행 부처가 되기 위한 인(因)이 되는 행(行), 또는 인위(因位)에 있어서 수행의 뜻. 깨달음을 여는 근본이 된다.

69) 영락(瓔珞) : 부처나 보살의 몸을 장식할 때 주옥으로 된 구슬이나 귀금속을 꿰어서 머리, 목, 가슴 따위에 두르는 장신구. 불교에서는 부처나 보살의 신체를 장식하게 되었음. 또 불전 안

다. 이 계 안에서는 유정(有情)과 무정(無情) 가릴 것 없이 모두 번뇌 없는 범신을 성취할 수 있다.

#### 수계자(受戒者)의 태도

만약에 선남선녀들이 계를 받고자 한다면 자신에 대해서 애착을 해서도 안 되고 자신을 방기(放棄:버려두고 돌보지 않음)해서도 안되며, 유심(有心)으로써 받아도 안 되고, 무심(無心)으로써 받아도 안 된다. 자신에 대해서 애착하면 사마(邪魔)<sup>70</sup>에 떨어지고, 자신을 방기하면 외도(外道:바른 길이 아닌 길)라 불리운다. 유심으로써 받으면 생사를 계속하게 되고, 무심으로써 받으면 허물에 빠지게 되며, 성품과 형상을 함께 받으면 성취할 수 없다.

#### 계법의 평등성

이 계법은 본래 일정함이 없어서 범부도 없고 성인도 없으며 선도 없고 악도 없다. 만약에 비구와 비구니, 그리고 우바새와 우바이가 이 계첩에 의지하여 수행을 하고자 한다면 모두 받아 지닐 수 있다.

#### 사귀의

##### 1. 깨끗이 믿어야 할 4귀를 받으라(淨信四歸依)

- 1) 형상 없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 2) 무생(無生)의 부처님 교법(教法:가르침)에 귀의합니다.
- 3) 다툼 없는(無諍) 스님네께 귀의합니다.
- 4) 최상승 무생계에 귀의합니다.

#### 참회

---

에서 주옥이나 꽃 모양의 금속을 짜맞추어서 드리운 것. 존상(尊像)이나 천개(天蓋)의 장식이나 불전(佛前)의 장엄(莊嚴)에 사용함. 장식, 주옥의 장식, 목걸이, 머리, 목, 가슴 등에 거는 주옥 장식. 불상의 목의 장식이나 당(堂)의 장식에 사용하는 것. 보물을 연결하는 끈.

70) 사마(邪魔) : 몸과 마음을 괴롭혀 수행을 방해하려는 간사하고 악독한 마귀

2. 모든 삼업죄(三業罪)<sup>71</sup>)를 참회하여 없애라(懺除諸三業罪)

도는 본래 깨끗하건만  
미혹하여 모른 까닭에  
한량없는 죄를 짓게 되어  
번뇌의 이 몸 받았네  
제가 이제 애달프게 참회하오니  
불보리를 속히 증득하게 해주소서

육대서원

3. 육대원(六大願)을 크게 발하라(發弘誓六大願)

- 1) 일체 중생이 성불하지 않으면 저 역시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 2) 일체 중생이 지닌 모든 번뇌를 제가 대신 모두 받겠습니다.
- 3) 일체 중생의 어리석음을 밝은 지혜로 바뀌게 하겠습니다.
- 4) 일체 중생이 지닌 모든 재난(災難)을 안온(安穩:아무 탈없이 편안하고 조용함)하게 하겠습니다.
- 5) 일체 중생의 모든 탐·진·치(貪瞋痴)를 계·정·혜(戒定慧)로 바뀌게 하겠습니다.
- 6) 일체 중생이 모두 저와 더불어 정등각(正等覺)<sup>72</sup>)을 이루게 하겠습니다.

무생계(無生戒)

4. 최상승 무생계

온갖 착한 일도 닦지 말고 악한 일도 짓지 말라(衆善不修諸惡不造)

위의 조항들은 옛날 법도를 갖추었으므로 또렷이 지닐 경우 한 번만 귀에 스쳐가도 모두 보리를 증득할 수 있나니 깊이 사유(思惟:생각)하고 수습(修習:배워 익힘)하여 영원토록 부처님 법을 신봉(信奉)함으로써 다 함께 어지러운 이 나루터를 떠나 깨달음의 저 언

71) 삼업(三業) : 신업(身業:신체동작), 구업(口業:언어표현), 의업(意業:심적행위)을 말함.

72) 정등각(正等覺) : 제불(諸佛)의 무상정지(無上正智). 진정한 깨달음. 일체의 진상(眞相)을 터득한 무상(無上)의 지혜.

덕으로 올라가야 하느니라.

축원(祝願)

- 황제의 성수(聖壽:임금의 나이)가 만세(萬歲:오래도록 삶)에 이르소서
- 태자와 여러 왕들의 수명이 천수(天壽:타고난 수명)에 이르소서
- 황후와 황비의 풍요(豐饒)로움이 영원(永遠)토록 무성(茂盛)하소서
- 국왕전하의 복수(福壽:행복과 장수)가 무강(無疆:한이 없음)하시고, 문무관료의 벼슬이 더욱 높아져 천하가 태평하여지고, 바람과 비가 알맞아 나라가 태평하여져 백성을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 부처님의 위대하심이 빛을 더해가고, 부처님의 법(法:가르침) 또한 늘 온 세상으로 전해지길 바라나이다.

계첩을 받은 시기, 수계자(授戒者), 수계자(受戒者)

태정(泰定) 3년(충숙왕 13년, 1326) 5월 15일에 첩(牒)을 씌.

여래(如來: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교(遺教:가르침을 전함) 전수(傳授:스승이 제자에게 법을전하다)한 일승계법(一乘戒法:부처가 되는 실천계율의 법)<sup>73)</sup>을 서천(西天:인도)의 선사(禪師) 지공(指空)이 우바이(優婆夷) 묘덕(妙德)에게 내려 주노라.

【『妙德戒牒』原文】

文殊最上乘無生戒牒

文殊最上乘無生戒法

夫無生戒者 健千聖之地 生萬善之基 基地不營 聖善何立 如蒸沙之作飯 豈有成時 似刻糞而求香 終無得理欲渡 苦海必假 慈航擬破昏衢 須然慧炬 所以一切衆生 不受此戒法者 欲成佛道 無有是處 此戒法中一切 有形無形 皆應受持.

是故 毘盧遮那親宣 文殊菩薩傳授諸佛 由慈成道菩薩賴 此因圓除煩惱之 清涼嚴法身地 璣於 此戒內不分有情無情 皆能成就無漏法身.

若有善男善女 欲受戒者 不得愛身 捨身有心無心 若愛身者 卽墮邪魔 若捨身者 卽名外道

73) 일승계법(一乘戒法) : 일불승(一佛乘)으로 단 하나의 부처가 되는 실천법.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깨닫게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

若以有心受者 卽續生死若 以無心受者 卽人斷滅 若以性相俱受 不能成就。

此戒法者 本來無一無凡無聖 亦無善無惡者 有比丘·比丘尼·優婆塞·優婆夷 似此行者皆得受持。

一受淨信四歸依。

歸依佛無形 歸依法無生

歸依僧無諍 歸依最上無生成。

二懺除諸三業罪。本來清淨道 爲迷無所知

造罪無邊量 受此煩惱身

我今求哀懺 早證佛菩提。

三發弘誓六大願。

一者一切衆生未成佛我亦不登正覺

二者一切衆生所有諸煩惱我皆代受

三者一切衆生所有諸昏愚令得明智

四者一切衆生所有諸災難令得安隱

五者 一切衆生諸貪瞋癡令作戒定慧

六者 一切衆生悉皆與我同登正等覺

四最上乘無生成 一衆善不修諸惡不造 右條具前如法精持一歷耳 根速證菩提思惟修習永 作舟航同出迷津提登覺 岸如斯勝利廣大無窮。

祝延

皇帝聖壽萬歲

太子諸王壽筭千秋

皇后皇妃金枝永茂

國王殿下福壽無疆文武官僚

高遷祿位天下太平風調雨順

國泰民安

佛日增輝法輪常轉者

泰定三年丙寅五月十五日牒 泰定四年二月 日牒

如來遺教弟子 傳授一乘戒法 西天禪師 指空

付受優婆夷 妙德